

연중 제32주일

기도서 P. 473 A해

제1독서(지혜 6. 12-16)
 제2독서(데살로니 4. 13-18)
 복음(마태 25. 1-13)

숲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목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교구청
 ☎ 5098 ③ 3201

□ 감론

有備無患

조 정 오 신부



人間에게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는 者에게 있어 그 때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기회가 다시 왔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형태의, 다른 조건의 기회이지 처음과 같은 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잃지 않도록 준비되어진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젊은이가 혼인할 나이가 되어 신부감을 구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미인이 좋을까? 아니면 나를 출세시켜줄 큰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진 여인이 좋을까 궁리하며 길을 가다가, 길가 나무 그늘에서 지친 몸을 잠깐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낮잠을 즐기는 사이 공주가 많은 侍女를 거느리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공주는 그늘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젊은이를 보고 늘름한 기상에 반해서 깨우려다가, 단잠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돈 많은 대재벌의 따님이 또한 요란스럽게 길을 갔습니다만, 그 여자도 역시 믿음직한 好男型の 그 남자를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없고 권세는 없으나, 뛰어난 미모를 가진 한 여인이 사랑의 도박을 걸만한 남자를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잠깐의 오수를 즐기는 사이 그 젊은이는 꿈속에서 그리던 이상적인 세 신부감을 모조리 잃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미련과 게으름 때문에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그때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앞서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만, 우리 자신의 마지막 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겠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예고하지 않고 찾아 온 신랑처럼 마지막 한 순간 죽음의 때는 찾아옵니다. 나에겐 아직 때가 멀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방심의 순간이 마지막 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필가가 얘기했듯이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험스런 순간은 그가 내일이라는 낱말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1년이 다가는 11월, 계획했던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때를 준비하는 자세요,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는 것만이 '신랑의 때'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삽시다. 그것이 有備無患의 삶이 될 것이요, 기약할 수 있는 내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십시오. -아멘-

<임실 전주교회 주임신부>



추수감사제에 동참하자.

가톨릭 농민회는 지난 70년대부터 추수감사제를 가져왔다. 농민들의 피땀이 제값을 못받아도, 결실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행사는 실로 거룩하기까지 하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의 값이 얼마이어야 하는가가 발표된다. 아울러 투박한 손길들이 어우러져 주고받는 막걸리 잔치도 있다. 비록 오늘은 어렵지만은 언젠가 그들을 찾아줄 기쁨의 날을 다짐하는 알찬 축제인 것이다.

가톨릭 농민회의 생산생비 조사작업과 정당한 생산비를 요구하는 합성은 그 배아리가 적었다. 위정자들에게는 들기에도 무겁고, 농기에도 무거운 짐이었고, 도시민들에게는 가계 압박의 요소처럼 느껴져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리라. 하지만, 흠속에 묻혀있는 노부도의 쭉그러든 손등이나 외할머니의 굵어진 잔등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바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그들이 농약에 쓰러졌기에 우리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젖줄이기 때문이다.

한숨을 새기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날은 우리 모두의 잔치날이 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몸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한을 우리의 아픔으로 서로 나누어서 져야 한다. 농민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농민들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가톨릭 농민회의 이러한 축제는 평신도 사도직의 발로이기도 하다. 역시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막중하다. 이 기회에 평신도 사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후회없이 죽을 수 있다. 마침 다음 주일은 평신도의 날이기도 하다.

숲정이 산책



언제 누가 임명될니까?



죽음의 신비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絶頂)에 달한다. 인간은 아픔과 꺼져가는 육체의 파멸(破滅)을 피로워할 뿐 아니라 영원한 소멸을 두려워한다.

인간실존의 완전한 파멸과 결정적 끝장을 싫어하고 거부(拒否)할 때, 마음의 본능에 따른 이 판단은 옳은 것이다.

인간이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의 씨는 순수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에 저항하여 일어설 수 밖에 없다.

기술의 모든 노력이 제아무리 유익하다해도 인간의 불안을 해소(解消)시킬 수는 없다. 생물학적 수명(壽命)의 연장은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고차적(高次的) 생명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떠한 상상(想像)도 죽음 앞에서는 맥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교회는 인간이 지상 불행의 한계(限界)를 넘어서 행복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창조되었음을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인간이 범죄치 않았던들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며, 죄로 잃었던 구원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세주의 은덕으로 인간이 다시 회복할지 죽음은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르친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성 전체로써 당신과 영원히 결합하여 당신 불멸의 생명을 나누어 받도록 인간을 이미 부르셨고 거듭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승리(勝利)는 그리스도 친히 당신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십시오로써 거두신 승리다. 따라서 확고한 논증(論證)에 바탕을 둔 신앙은 깊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주며 미래 운명에 관한 그의 불안을 해소(解消)시켜 준다.

그와 동시에 신앙은 또한 죽음이 먼저 앗아간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들은 이미 하느님 곁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사목 18)

'81 추수감사제 및 전북 농민대회에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가뭄, 장마, 태풍과 싸우며 지난 3년간의 쓰라린 흉작을 만회하는 풍요로운 추수를 맞이하여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헤아려보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의 피와 땀의 댓가는 흔히 값없이 취급당해 왔습니다.

농가소득의 주요 원천인 쌀값만이라도 제값을 찾아야겠다는 뜻에서 7년간 쌀 생산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 농정당국에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해마다 농민대회를 열어 추수에 대한 감사와 농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표현하며, 힘들었던 한해를 축제를 통하여 고달픔을 풀어보는 순수한 농민의 광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해마다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쌀 수매가에 농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추수를 해놓고 무거운 마음의 농민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농민들이 받아야 될 노력의 댓가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농사 형제들이 없으면 우리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나누는 이번 행사에서 만남시다. 농민들의 의사는 표현되어야 하고 후년에도 계속 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기 가난한 농민들이 하느님의 제전에 오곡백과를 봉헌하여 더 좋은 농촌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81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시다. 농민들의 밝은 내일을 개척하기 위해 뜻을 모아봅시다.

뜻있는 분들의 동참과 성원을 진심으로 열망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1년 11월

'81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준비위원회

- 행사일시 : 1981년 11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전주 중앙 천주교회
- 행사내용 : 제 1부 추수 감사미사-사제단 공동 집전
- 제 2부 농민대회-우리의 주장과 다짐
- 제 3부 농민축제-농악, 탈, 창 등 행사
- 참가요령
- *대상-농민, 성직자, 수도자, 신자, 그의 관심있는 모든 분
- *참가자는 11월 20일 오전 10시30분까지 전주 중앙 천주교회에 도착하여 입장을 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생산비 조사원은 별도 기념품 증정
- *기타 자세한 것은 전주교구청(☎5098)에 문의바람

※ 교우 여러분을 가까운 곳에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양 약 한 약

성 가 약 국

(전동 전영정기화물 앞)
전화 ☎ 5835
약사 권 요 섭(성윤)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Weekend 버킹검
MCGREGOR Buckingheim
맥그리거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 4451
유 율 리 안 나

사진재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다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 화 ☎ 4448 ☎ 2176

ECCLESIA

「가톨릭 대학생 합창단」 스스로 결성

지난 6월 2일에 대학생연합회에서는 교구내 전문대 이상의 남·녀 신자 대학생으로 구성된 「가톨릭 대학생 합창단」을 발족시켰다.

이 합창단은 각 본당과 협조하여 성가보급 육성과 대학생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뜻을 모았다. 지난 9월 순교자 현양대회(4지구) 성가부분을 담당할 것을 시작으로 10월 22일에는 KBS주최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가톨릭 음악을 선보이고 좋은 반응을 얻기까지 했다.

현재 60여명의 단원들은 12월중의 발표(예정)를 앞두고 8월부터 덕진 가톨릭 학생회관에서 맹연습을 하고 있다. 교구내 대학생들중 뜻있는 회원들의 동참도 기다리고 있다. 희망자는 월·수요일 5시30분의 연습시간에 직접 나오면 된다.

스스로 일어난 지성의 일각, 우리 가톨릭 대학생 합창단의 창창한 전도 축복과 가득한 성원을 빌어마지 않는다.

복자 성당에 「성 빈첸시오 집」 마련

나눔의 집, 특히나 하찮고 보잘것 없는 생들을 위해 한낱 고귀한 삶을 바치신 성 빈첸시오, 그리고 우리 장한 선열들의 거룩한 순교정신을 본받아 조그만 사랑 하나 낳고 싶은 열정들이 드디어 복자성당 입구에 집 한 칸을 마련했다. 이를하여 「성 빈첸시오의 집」.

복자 부녀회에서는 이곳에서 양보다 질을 보시고 부자의 많은 현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닢을 더 귀히 보시던 주님앞에 처럼, 앞으로 교우들을 위한 성물과 특히 주부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진열, 서로 돕고 위하는 친교의 장을 이루겠다.

더우기 이득금은 주님의 사자될 신학생 양성 후원비로 봉헌하겠다는 미쁘고 고운뜻, 회원 모두 하나 되어 회생과 봉사의 운영을 다짐한 이 작은 집에 님의 축복 가득 깃들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모쪼록 정겹게 두루두루 많이들 애용하시기를.....

제2지역, 원평 성전 신축에 사랑의 동참

유서깊은 수류의 공소였던 원평이 본당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지역에 알맞은 주님의 성전 건립에 첫삽을 든지 9개월에 이른다. 원평본당의 형제들은 주의 품안에 함께 하고픈 열망과 이웃선교의 기치아래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며 성당신축에 맘을 올리고있다.

그동안 가깝게는 인접 본당과 교구내 은인들 타교구의 본당들, 멀리는 외국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해왔다. 경비절감을 위한 고달픈 직영(直營)은 이미 들어 아는바다.

가파른 언덕의 오르막 길에, 제2지역(대야·둔율동·오룡동·월명동·팔마)의 전 본당이 10월 마지막 주일의 봉헌금 1백만원을 모아 신축현금에 선뜻 내놓았다. 자체유지에도 급급한 시기에 놀라운 결단이며 우애(友愛)이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단합된 힘으로 원평성당 신축에 참여하자.

전교 역군 「신심단체」 육성에 적극 관심써

(창인동·임실)

조직적이고 실효성 있는 선교방안의 일환으로 창인동과 임실본당에서는 전교우 신심단체 가입을 목적으로 그의 소개와 가입권유에 한창이다.

모의 회합, 일정별로 나누인 각 대표들의 특성·조직·모임일시·활동내용 소개와 가입안내,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적극적인 초대로 커다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양 본당의 더 큰 발전을 빈다.

요심이 (431)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직원(체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는 시도 반주해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짜즈·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바이엘 이상 소화자면 6개월 연습이면 명곡·가요 등 화음 리듬 가미해 구성된 반주해낼 수 있는 걸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선미 꽃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피도(떡배)·이 마리아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⑥ 6900 야간 ⑥ 0496

金 榮 均(요셉)

결 (축) 혼

신랑 : 소 해 릉(안드레아)
신부 : 범 진 순(아네스)

일시 : 1981년 11월 15일(11시)

장소 : 전주 전통 전주교회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목지침 연구위원 모임 : 11월 10일(화) 오후 2시~5시
2. 교구 산하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지도신부, 간부) : 11월 14일 오후 2시~5시
3. 1981년 추수감사제 및 전북 농민대회 : 일시-11월 20일 오전 11시, 장소-중앙침주교회
4. 제 4지역(전주) 올드레야 : 11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3층
5. 4지역 학생 성가경연대회 : 15일(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환
 ③3874번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김병호

1. 사도회 월례회 : 11월 12일(목) 오후 7시30분 사제관 사도회 고문·회장·분과위원장·구역장·반장 쪽...
 2. 꾸리아 월례회 : 오후 2시 강당
각 브레서디움 간부는 모두 참석 바람
 3. 본당 위령의 날 : 11월 17일(화) 오후 7시30분
이날 아침미사 없으며 봉헌금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4. 사제 위령의 날 : 11월 24일(화) 양들을 위하여 헌신
하다 가신 사제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침미사 없습니다
 5. 자모회 월례회 : 11월 14일(토) 오전 10시 회합실
 6. 고등학생 체육대회 : 11월 8일 오전 10시
 7. 4지구 학생 성가경연대회 : 11월 15일 오후 2시 본당
 8. 가정통신 : 각가정에 송부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9. 본당 살림이 어렵습니다 : 밀린 교무금 완납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583, 194원
 감사헌금 : 박마리아 5,000원

2. 사도회 : 오늘 저녁 7시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예산 2차심의)
 3. 축! 빈첸시오의 집 : 오늘 공식미사 후 축성
성물 및 일용품을 부녀회에서 판매하오니 신자 가정
에서는 많은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봉헌금 미수 완납바랍니다
 5. 자모회 : 11월 9일(월) 어머니미사 후
 6. 차주 전례 : 해설-백종숙, 독서-①조성호 ②최정순
- 지난주 봉헌금 : 315, 182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사무실)
 2. 반장님 월례회 : 공식미사 후(회의실)
 3. 꾸리아 : 오늘 오후 2시
 4. 성심부녀회 : 11월 오후 2시, 성당 회의실
 5.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성서교리 : 매주 수요일 7시30분
 7. 가정방문 : 8부-10일~11일, 9부-12일~13일
 8.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한형수 ②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 210, 605원 교무금 : 107, 1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사도회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베소라 성서강의 : 10일(화) 저녁 7시
주최 : 파월준비 -유대 건국제 - 마르 14 : 10-16절
중심으로
 3. 견진성사 접수 :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은 영세증명서
를 첨부하여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견진교리 16일~21일까지
 4. 교무금을 납부하십시오 : 11월중에 완납하십시오
 5. 수녀님들 베소라 성서특강 : 9일(월) 오후 2시~4시
 6. 애령회 정기총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간부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7. 미사시간 변경 : 주일 저녁미사 오후 7시
15일부터 실시, 착오없이 부탁드립니다
 8.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 1-2경전의 지혜서와 집회
서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294, 72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③9567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사도회임원 감사
구역장, 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2. 성모회 월례회 : 11월 15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식 : 11월 일 오전 9시
 4. 성경연구 : 청년 남·여 모임, 매주 화요일 7시30분
 5. 봉사들의 모임 : 매주 오후 4시45분
 6. 성가대원 조직 : 11월 22일 공식미사 후
남·녀 연령별 없이 희망하신 분 환영
 7. 차주전례담당 : 해설-정주복, 독서-이중상·김경주
- 지난주 봉헌금 : 342, 400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열
 사도 회장 양상열

- ※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하십시오
1. 반석회 월례회의 : 공식미사 후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2. 주일학교 교리 : 매주일 오후 2시에 교리, 3시 미사
가정의 귀영등이 교리반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3. 예비자교리 : 주일 공식미사 후
많은 예비자 인도하십시오
 4. 성서연구 : 수요일 오후 3시,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람
신구약성서·필기도구 지참
 5. 견진자 교리 : 교리책 공부하시고 성경숙제 받아가세요
일요일 공식미사 후
 6. 각분파 82년 사업계획 오늘까지 제출 바람
사업계획 제출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함
 7. 성모회 월례회의 : 다음주일입니다
할머니를 빠지지 마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67, 93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③6208번 보좌 신부 박병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 : 공식미사 후
 2. 장우회 : 저녁미사 후
 3. 미사시간 변경 : 주일 아침미사 6시 (15일부터)
 4. 복자회 : 사도회에서 승인
 5. 구역지도위원 모임 : 토요일(14일) 오후 7시30분
 6. 가정방문 : 11월 10일~13일-풍교동·서교동
11월 17일~20일-동완산동·서완산동
 7. 성화회 : 다음주(15일) 공식미사 후
 8. 피미씨음 : 다음주(15일) 오후 2시
 9. 젊은이 단체장 모임 : 오늘(8일) 저녁미사 후
보좌신부님 방
 10. 다음주(15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최병래 ②배양길
공식미사 : 해설-양원홍, 독서-①박순기 ②이종두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이영철 ②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 461, 41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견진성사 : 15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오전 9시30분까지 대부·대모와 같이 와서 준비바람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축! 건진 : 주교님을 환영하고 선교의 용감한 군자
가 됩시다
 2. 꾸리아 : 오늘 오후 2시
 3. 로사리오의 밤 행사 :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4. 사도회 정기총회(※ 회장단 선출) : 11월 22일
기도와 관심을 가집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27, 600원 교무금 : 169, 000원
 로사리오의 밤 : 78, 285원